



귀향, 정착과 공생 : 변경 마을에 울려 퍼지는 융합의 하모니

- 변경의 작은 마을 삼합진에서 듣는 향촌 진흥의 생생한 노래 (1)

편집자 주 :

본 보도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정시 삼합진에서 펼쳐지는 향촌 진흥 실천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변경 기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한족, 다우르족, 핑족, 투자족, 만족 등 여러 민족 서부 계획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룡정시 마을에 찾아와 기층 건설에 합류하면서 원래 조선족 촌민이 대부분이던 삼합진은 현재 다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향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 1 장 귀향, 정착과 공생의 하모니

백년 마을 - 삼합진으로 가보다

룡정시에서 동남쪽으로 50킬로미터 떨어진 변경 마을 삼합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한 이 작은 마을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한적한 산촌에 젊은 감각의 커피숍이 문을 열었는가 하면 민박 시설이 생겨났으며 관광 기반 시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마을이 젊어졌어요.” 주민들의 이 소박한 감탄은 삼합진이 맞이한 새로운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정에 속하는 삼합진은 두만강의 물결 따라 66.8킬로미터의 변경선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역사는 백년도 더 거슬러올라간다. 삼합진은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동네일 뿐만 아니라 입쌀과 사과배 등 특산품으로도 이름을 떨치며 명실상부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다. 자연의 매력과 지역 별미가 넘쳐나는 삼합이지만 한때는 G331 국도변의 조용한 산간마을에 불과했다. 젊은이들의 대도시 이동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제한된 초집체 수입, 단일한 산업구조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삼합진이 최근 국가의 향촌



▲ 대학생 자원봉사자 포모함은 내몽골에서 온 다우르족이다. 동네 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는 포모함은 어르신들은 우리 ‘손녀’라고 부른다.

진흥 정책 지원과 ‘서부계획’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투입, G331 변경 관광 대동맥의 활성화 등 동풍을 타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마치 철새처럼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들의 발걸음과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의 열정이 삼합진 당초의 인술하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융합의 장이 열리고 있다.

“삼합진의 변화는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가며 공동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합진은 이러한 융합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갖고 있는 관광업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면서 G331이 겸유하는 삼합 구간을 가장 아름다운 변경 명품 관광 로선으로 발돋움시킬 것입니다.” 삼합진당위 서기 박호범의 다부진 전망이 자 욕심이다.

귀향과 창업, 현장에서 일궈내는 실질적 변화

삼합진은 예로부터 교육열이 높아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을 중시해왔다. 이 외진 변경 마을에서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까지 퍼져나간 ‘삼합인’들이 마치 철새처럼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면서도 고향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적·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터전을 잡은 삼합인들은 창업의 형태로, 교육자 신분으로, 또는 연구자로 그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에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제 2의 고향’에 정착하여 현지인들과 함께 고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상감식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철새’들에 더해 ‘유자’들의 귀향 창업 또한 삼합진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학서촌 서기 김철규(1975년생)는 해외와 외지 생활을 경험한 후 2011년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 철새’이다. 학서촌에서 나서자란 김철규는 촌의 전임 서기였던 김서기가 고향에 와서 함께 잘살아보라고 설득해서 귀향을 했다고 말하나 그 기저에는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깔려있었다.

귀향후에는 모래공장도 운영하고 사과배 판매에도 도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러다 2022년부터 촌의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어 촌주임으로 고향 발전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기 시작했다. 지금은 촌서기로 서 촌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가 촌주임으로 취임했을 때 마주한 과제는 마을의 자량인 사과배, 입쌀, 송이버섯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였다.

▶ 2 면으로

책향기 가득한 연길, 독서로 아름다운 도시

연변조선족자치주 및 연길시 2026년 전민독서 활동 주간 가동



▲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연길시를 대표하는 ‘기층 독서 권장인’ 11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 박경남특약기자

연변조선족자치주 및 연길시 2026년 전민독서 활동 주간 가동식이 19일 오전 연변로동자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책향기 가득한 연길, 독서로 아름다운 도시’를 주제로 한 이번 전민독서 활동 주간은 주회장과 6개 분회장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가동식 현장에서는 ‘책향기 가득한 연길, 독서로 아름다운 도시’ 홍보 영상과 <전민독서축진조례> 해설 영상이 상영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길시중앙소학교 학생들이 낭독한 <소년중국설>(少年中国说) 역시 동심 가득한 힘찬 목소리로 가슴 벅찬 나라 사랑을 전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가동식에서는 또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 ‘책향기 연길’의 중점 대상인 ‘더북+북카페 역참’을 잇는 ‘도심 속 책나들이 지도’가 공개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선사했다.

그런가 하면 연변대학 문학원 부교수 왕계등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활동 분야를 바탕으로 독서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권하고 싶은 추천 도서를 소개하며 지적 교감을 나눴다. 아울러 바이올린 연주, 가요 <책 읽는 도시>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어우러져 행사장에 깊은 예술적 감동을 더했다.

특히 이날 활동에 참석해 행사의 시작을 알린 연변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연길시를 대표하는 ‘기층 독서 권장인’ 11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독서 권장

인 대표들은 <책향기 가득한 연길> 건설을 위한 전민독서 활동을 독려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가동식과 더불어 주회장이 연변로동자문화관 1층 로비에는 ‘독서와 함께하는 연길 여행, 책향기 가득한 북카페’를 주제로 한 특별 체험존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도서 전시, 도서 교환, 서화 창작 등 13개의 다채로운 테마로 구성된 이 공간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되면서 연변만의 독창적인 인문 분위기와 문화적 매력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같은 날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연길시백스연단유한회사, 국가세무총국연길시세무국 등 6곳의 분회장에서도 독서축제의 서막이 동시에 열렸다. 각 분회장은 기관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기업 종업원을 비롯해 청소년, 기업 종업원을 활용해 청소년, 기업 종업원을 선보였으며 주회장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서 봉사 체계를 도시 구축구축까지 확대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학부모 손정씨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 교류 행사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이 정말 의미 있고 아이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체험감이 매우 훌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민독서 활동 주간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행사 기간 약 50여차례의 다채로운 독서 장려 프로그램이 펼쳐져 시민들의 독서 열기를 일깨우고 ‘읽는 삶’이 주는 행복과 마음의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 김가혜기자

2026년 연길봄철자동차전시회 개막

65개 자동차 브랜드 전시, 그중 신에너지 브랜드 22개로 3분의 1 이상 차지

4월 18일, 연길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주공상연합회자동차사업총회, 연변공기자동차무역유한회사에서 주관한 2026 연길봄철자동차전시회가 연변공기자동차무역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에게 윈스턴 구매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연변 자동차 시장 소비 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회 규모는 사상 최대로 100여개 전시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 차, 중고차 및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 그중 새 차 업체 58개, 중고차 업체 42개가 참가해 승용차, 상용차, 신에너지차 등 다양한 차종을 선보였으며 여러 인기 새 차들이 전시회에 집중 출시되어 하이лай트를 이루었다. 특히 65개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서 신에너지 브랜드가 22개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하이브리드(油电混合动力) 차량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대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연길 시민 김선생은 “토요타와 국산 차 모델을 살펴봤는데 주로 하이브리드를 고려하고 있다. 가장용으로 기름도 절약하고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 리전기자

길림성 열공급 기준 18℃에서 22℃로 조정

4월 15일, 길림성 도시열공급질제고사업 전문회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도시 열공급 온도 기준을 최대한 22℃에 도달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길림성이 여러 해 동안 적용해온 18℃의 열공급 기준을 공식적으로 최적화하고 향상시켜 수많은 주민들의 열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질 제고 행동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민들의 집이 따뜻해지는 바로 초심이 여전히 빛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열공급 보장’에서 ‘열공급 최적화’로, 전통적 열공급에서 녹색 전환으로, 민생을 위한 복지는 결심뿐만 아니라 꾸준한 인내심도 필요하다. 4℃는 작은 수치일 수 있지만 민생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 온기가 현장에 뿌리내려 22℃가 민생의 따뜻한 성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후된 열공급 도관망 개조, 에너지 비용 통제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약하면 ‘겨울 병 여름 치료’(冬病夏治)이다. 겨울철에 드러난 문제들을

여름철 기간 동안 미리 손보고 해결해 주는 겨울에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자금 지원, 스마트 감독, 기업 격려, 설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라는 네가지 수단을 추가하고 백성(白城)의 지열난방, 화전(桦甸)의 전기난방 등 녹색 시범 사업을 결합한다면 22℃는 더 이상 지면상의 기준이 아니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함이 될 것이다.

‘열공급 보장’에서 ‘열공급 최적화’로, 전통적 열공급에서 녹색 전환으로, 민생을 위한 복지는 결심뿐만 아니라 꾸준한 인내심도 필요하다. 4℃는 작은 수치일 수 있지만 민생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 온기가 현장에 뿌리내려 22℃가 민생의 따뜻한 성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 무송미디어